#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 '불멸의 이순신' 등 대하사극 4편 日 수출

'불멸의 이순신' 등 KBS의 대하사극 4편이 일본에 수출됐다.

KBS는 최근 "프랑스 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의 영상 프로그램 박람회 MIPTV 2008에서 일본과 '용의 눈물' '왕과 비' '무인시대' '불멸의 이순신' 등 대하사극 4편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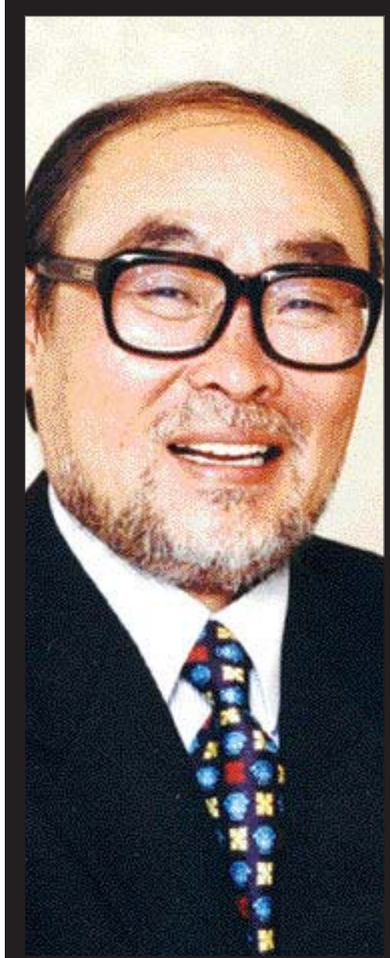
권오석 KBS글로벌전략팀장은 "이는 최근 일본에서 한국의 사극은 물론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겨울연가'에 이어 정통 대하사극이 일본에서 새로운 한류의 흐름을 창출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서 KBS는 다큐멘터리 '인간의 땅'을 아랍 위성TV 알자지라에 선판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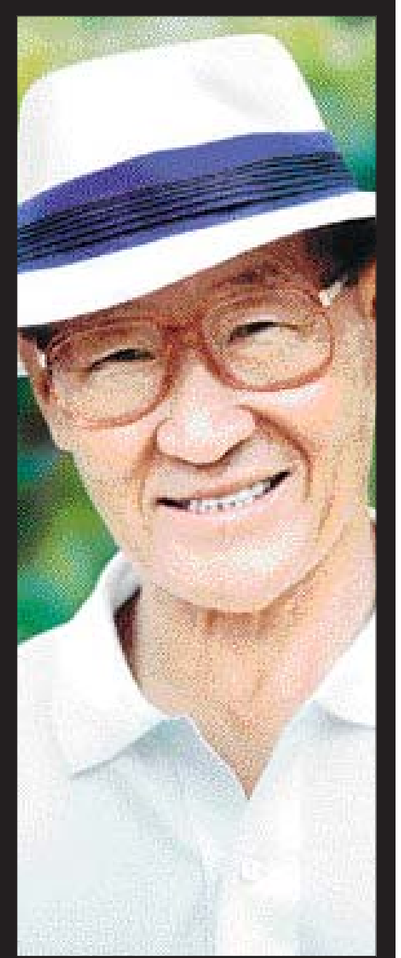
# 세상 떠난 유명인 다시 세상속으로

지난해 KTF 'SHOW' 광고에 등장한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을 시작으로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코미디언 이주일, 미국의 팝 아티스트인 앤디 워홀까지….

세상을 떠난 유명인들이 최근 TV 광고를 통해 부활하고 있다.



〈故 이주일씨〉



〈故 정주영 회장〉

## 정주영·이주일씨 등 TV 광고 통해 부활

정주영 회장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한 현대중공업 광고에 나온다. 생전에 한 대학에서 특강을 했던 모습이 담긴 영상자료를 활용해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만든 광고에서 정 회장은 현대 조선소 창업에 얽힌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한다.

경제발전을 이뤘던 정 회장을 추억하며 그가 생전에 보여줬던 도전정신과 기업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에 되겠다는 현대중공업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깐요' 등 수많은 유행어를 남긴 '코미디 황제' 이주일도 흥국쌍용화재 '이유다 이렉트 자동차보험' 광고로 모습을 드러냈다. 어려운 시절 큰 웃음을 줬던 그가 생전에 보여준 코미디 공연 장면을 편집한 화면에 후배 코미디언 이봉원이 고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모사해서 대사를 입힌 광고다.

지친 생활에 활력을 주는 코미디처럼 보험회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1960년대 전세계 미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미국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을 모델로 기용했다. 또 그의 작품을 변형해 자사 금융 상품까지 알리고 있다.

이 광고는 빠른 편집과 독특한 배경음악으로 파격적인 작품 활동을 보여주며 미술계에 변화를 이끌었던 앤디 워홀의 감각적인 면을 강조했다.

앤디 워홀이 사고방식을 전환해 미술계의 한 획을 그은 것처럼 '조금 다르게 보고 생각해보자'는 하나금융그룹의 각오를 담고 있다.

이처럼 고인을 모델로 사용할 경우 우선 출연료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유명배우들을 광고에 사용하려면 수억원에 이르는 모델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저작권료나 초상권료 등은 그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흥국쌍용화재의 경우 이주일의 광고 출연료를 유가족의 뜻에 따라 불우이웃돕기에 썼으며, 창업자를 등장시킨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출연료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이밖에 기업 이미지 광고에 창업주가 등장, 창업 당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창업주의 도전정신을 보여주기도 한다. 최대 철강회사인 포스코를 창립한 박태준 회장이 창립 40주년을 기념광고에서 "생사를 걸고 해보겠다는 그런 굳은 결의를 갖고 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라며 임직원을 격려하는 광고가 대표적이다.

광고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화배우 제임스 딘은 영원한 젊음을 상징하며 종종 광고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며 "유명인들에 대한 친근감과 유대감을 활용해 기업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채림 "청와대 경호관 멋진 액션 보여드리죠"

## KBS 2TV '강적들' 출연

탤런트 채림이 30대의 첫 작품을 액션 연기로 장식한다.

채림은 '싱글파파는 열애중' 후속으로 14일 방송을 시작한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강적들'에서 승부욕 강한 청와대 신입 여경호관 차영진으로 분한다.

청와대 경호관들의 일과 사랑을 그린 이 드라마에서 채림은 전작 '달자의 봄'의 노처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강한 여성으로 변신했다.

"액션 연기는 스스로 놀라면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운동 신경이 좋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는 "액션 연기로 매일 멍이 들어 달마티안 되겠다는 이야기도 듣지만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것 같아 재미있다"고 웃으며 "물론 마음먹은 대로 몸이 따르지 않지만 잔 부상을 입더라도 최대한 대역 없이 촬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30대라는 게 아직 실감나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책임감이 막중해짐을 느낀다. 이번 드라마에서는 멋진 액션 연기과 함께 경호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인간적인 면을 보여드리고 싶다"

'강적들'을 통해 채림은 '달자의 봄'과 '오! 필승 봉순영'의 강은경 작가와 또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다.

채림은 "강은경 작가의 대본은 그 자리에서 한번에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흡입력이 있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결정했다"면서 "감독님과 배우들, 제작진이 지금까지 연기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최고여서 복 받은 2008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작품의 연출은 '경성스캔들' '도망자 이두용' 등의 한준서 PD가 맡았다. 극중 대통령의 외동아들 강수호 역은 이진욱이 맡았으며, 채림의 동료이자 라이벌인 경호관 유관필은 이종혁이 연기한다. /연합뉴스

# 4 BOX OFFICE

### 영화

(단위:명)

| 순위 | 제목 | 전국관객 | 전국누계 |
|---|---|---|---|
| 1 | 테이큰 | 29만1천771 | 41만6천462 |
| 2 | 삼국지:용의 부활 | 18만2천940 | 77만1천687 |
| 3 | G.P 506 | 15만895 | 74만3천701 |
| 4 | 연의 황후 | 6만6천318 | 11만7천739 |
| 5 | 나의 특별한 사랑이야기 | 4만6천481 | 10만3천134 |
| 6 | 버킷 리스트:죽기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 4만3천120 | 7만4천18 |
| 7 | 추격자 | 4만61 | 494만2천911 |
| 8 | 내가 숨쉬는 공기 | 3만9천647 | 7만1천335 |
| 9 | 도레미파솔라시도 | 3만625 | 15만4천279 |
| 10 | 천일의 스캔들 | 2만9천247 | 63만3천98 |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 TV

(단위:%)

| 순위 | 제 목 | 방송국·시청률 | |
|---|---|---|---|
| 1 | 미우나 고우나 | KBS1 | 37.9 |
| 2 | 이산 | MBC | 31.7 |
| 3 | 엄마가 뿔났다 | KBS2 | 28.0 |
| 3 | 조강지처 클럽 | SBS | 25.0 |
| 5 | 무한도전 | MBC | 21.9 |
| 6 | 행복합니다 | SBS | 21.0 |
| 7 | 그래도 좋아 | MBC | 20.3 |
| 8 | 해피투게더 | KBS2 | 19.5 |
| 9 | 온에어 | SBS | 19.4 |
| 10 | 이현동 마님 | MBC | 19.3 |

〈자료제공:TNS리서치〉

### 비디오

| 순위 | 제 목 | 장 르 |
|---|---|---|
| 1 | 워 | 액션 |
| 2 | 미스트 | SF |
| 3 | 더 게임 | 스릴러 |
| 4 | 원스 어폰 어 타임 | 코미디 |
| 5 | 세븐 데이즈 | 스릴러 |
| 6 | 3:10 투 유마 | 액션 |
| 7 | 나는 전설이다 | 스릴러 |
| 8 | 무방비도시 | 액션 |
| 9 | 오퍼나지:비밀의 계단 | 환타지 |
| 10 | 어거스트 러쉬 | 드라마 |

〈자료제공:비디오코리아〉

### 가 요

| 순위 | 제 목 | 가 수 |
|---|---|---|
| 1 | 미안해요 | 거미 |
| 2 | 다 줄꺼야 | 이승기 |
| 3 | 원 모어 타임 | 쥬얼리 |
| 4 | 사랑해 | 마이티 마우스 |
| 5 | 아이처럼 | 김동률 |
| 6 | 슬픈다짐 | 다비치 |
| 7 | 러브 | 브라운아이드걸스 |
| 8 | 미워도 사랑하니까 | 다비치 |
| 9 | 기억을 걷는 시간 | 넬 |
| 10 | 만약에 | 소녀시대 태연 |

〈자료제공:멜론〉